

2017. 9. 7

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 Comment

●
음식료
Analyst 김정욱
02. 6098-6689
6414@meritz.co.kr

Comment

전일 단체급식 관련 규제 우려 부각되며 주가 6.1% 급락. 8월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공기관 구내 식당의 대기업 입찰을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발단이 됐으며, 급식시장의 과점과 더불어 대기업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잠식한다는 점을 지적.

수주를 기반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단체급식 사업에 우려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정부 규제 영향이 실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. ① 수주 고성장이 발생하는 카테고리인 병원, 골프장 등으로 공개 입찰을 거쳐 수주하고 있음, ② CJ계열사의 캡티브 비중은 10% 중후반으로 낮은 수준(식자재 유통 포함 기준, 단체급식은 5% 수준), ③ 16년 공공기관 단체급식 수주(16년 수주 시장은 1,000명 이상 공공기관 단체급식 약 30건)는 없었기 때문.

하반기 외식/급식 유통, 프레시원, 푸드서비스 중심의 실적 고성장 흐름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될 전망이며, 단체급식 규제는 캡티브 비중과 수주 성격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보다는 우려가 과도했다고 판단.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정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9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정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